

집 증기벽 포교·신도단체 공간부족 현황과 대책

전법 일선을 뛰어넘어 포교·신도단체 사무공간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최근 조계사 교육관에 입주하고 있는 포교원 산하단체 파라미터청년협회의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사측으로부터 5월 15일까지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공간 개선 및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다. 단체들은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에 당혹스럽지만 그보다 사무실을 옮길 일이

더 걱정이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포교원도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선 현재 건립 중인 '전법회관'이 오는 8월 완공되면 단체들의 공간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행과 전법'을 지표로 내건 조계종이 겪고 있는 포교·신도단체의 공간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특하면 짐 싸라니... 전법활동 어디서?

▲1년에 한 번 이사 '짐 싸는 게 일이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이삿짐을 꾸렸다. 그때마다 중단은 '공간확보'를 약속했다. 전법회관 완공 후 입주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4-5년 새 세 차례 이사를 했던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달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청년회 사무실이 있던 부지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우리함께회관 내 33㎡(10평) 공간에 간신히 짐만 부러놓을 대분량은 전법회관이 완공되면 다시 이사를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임시로 공간을 마련한 종로구 경운동 건물 내에 동지들 틈신도단체도 이처럼 전법회관 완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법회관이 모든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부족'이다. 전법회관은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된다. 각 층은 330㎡(100평) 정도다. 전법회관 공간 중 중앙신도회를 제외한 포교단체 5곳, 신도단체 9곳에 배정된 공간은 429㎡(130평), 1개 단체 당 33㎡(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다. 화장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면적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회의공간은 제외하더라도 상근활동가 4-6명의 책상과 관련 자료를 둘 곳만도 빠듯하다.

대불련과 대불정,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터 등은 현재 66㎡(20

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의 경우 사무공간 외에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등 방문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상담개발원이 전법회관 입주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전법회관 공간 활용 계획에 따르면, 전법회관 8-9층은 중앙종무기과 교역직 스님들의 방사로 쓰인다. 7층은 불교신문, 6층은 문화유산발굴조사단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나눠 사용하고 99㎡(30평)만 포교단체에 배정됐다. 5층은 조계종사회복

전법회관 완공 돼도 사무실 여전히 태부족 2천~6천만원 입주 보증금 부담도 큰 문제

지제단과 출판사가 사용하고 4층에는 교육장 2개소가 들어선다. 3층에는 대불련, 대불정을 포함한 신도단체들이 입주한다. 2층은 불교인재개발원 등의 중앙신도회 부속기관이, 1층에는 출판사 판매매장과 중앙신도회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전법회관 입주하려면 보증금 내야=이처럼 전법회관 내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보증금'도 부담이다. 중앙신도회가 단체들에 제시한 입주 분담금은 후일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임대보증금이다. 이는 중앙신도회가

전법회관 건립기금을 모연하는 것으로, 종단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총무원 재무부의 설명이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은 "중앙신도회가 제시한 보증금은 3000만원 정도로 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그나마 단체의 여건을 배려하지 않고 1개 층에 신도단체들을 다 입주시키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흥지연 지도위원도 "공간 문제가 안정되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음에도 현재는 사무실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다"며

"일단 전법회관 완공까지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불정 김도현 조직담당은 "전법회관에 입주할 계획"이라며 "신도단체들마다 특색도 있고 필요공간의 편차도 있는데 배정된 공간이 적어 입주 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교·신도단체의 전진기지'를 자초하면 전법회관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2006년부터 건립이 추진된 전법회관은 한동안 부지 매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건립 당시에는 중앙신도회가 부지 외에 15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2면에서 계속>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땅끝에서 보내온 봄소식 봄이 오고 있다. 3월 13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한 미행사의 돌담 위로 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추운 겨울을 건너며 모두가 기다린 봄. 시절을 기다려 꽃을 피운 매화가 그 봄이 왔음을 알린다. 도량에 핀 매화 향기가 돌담을 넘어 남녘 땅끝에서 봄소식을 해남 미행사=글·사진/박재원 기자

“사찰 앞 철로건설 웬말”

관음종 약사원, 철도시설소 추진 반발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2리 주민들에게 이상한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울산 포항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자명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땅에 철로가 건설된다니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주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주민대표는 설명회를 자명2리 마을회관으로 직접 와서 해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월 11일 자명2리를 방문해 마을 앞쪽으로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

성을 깨닫고 즉각 '자명노선 반대 촉구위원회'를 결성해 투쟁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자명2리에 죽산 관음종 종정 스님의 주석사찰인 포항 약사원이 있어 만일 예정대로 철로가 들어 설 경우 수행 환경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관음종대 대취위를 구성하고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번 철로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제 강점기에 개설된 철로를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경주에서 철로를 건너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철로는 약사원 일주문에서 15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 후

에도 소음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년에 두 번 안거를 여는 등 교육수행 도량 역할을 하고 있는 약사원으로서 만일 철로가 건설되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3월 5일 약사원에서 종정 죽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홍파 스님, 교무부장 대광, 사서실장 도각, 감찰국장 도법 스님 등 10명이 모여 '전통사찰 약사원 앞 철로 건설 저지 중단 대취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로 건설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광, 도법, 호천, 지선, 호명, 도각 스님 등 6인으로 정했다. 산하 위원으로는 총무원 부국장급 스님들과 죽산 문도회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4면> 포항=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분과위 활동 분주

분과별 주요현안 점검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8일 제 176회 중앙종회 개회를 앞두고 각 분과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는 3월 1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포교활동 관련 주지 평가제도 마련'에 대해 9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연)는 11일 ▲'사법보상금및 불신사 주지직무관련 의혹조사소위원회'를 재심포계원의 심판 종결 시까지 존속시키며 ▲사법보상금은 본래 교부된 목적에 맞게 회동사로 환원해 사용하도록 사회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는 13일 지난해 12월로 만료된 교육불사분담금 납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관람료관리비 개정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관람료사찰 주지는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영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후대문 010-7504-4521 (강령회 변호사)
010-535-0685 (장기원 변호사)
010-4488-3740 (안복식 변호사)

부처님 제108차 생로병사 “행타향” 한국 전통 문화 유산, 영산(영산대왕)의 108차 생로병사 “행타향” 한국 전통 문화 유산, 영산(영산대왕)의 108차 생로병사 “행타향”

KBS ITV 생로병사 “행타향” 방영에 이어 “니를 깨우는 108배” 도구는 향기나와 ...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관음, 속 속 속 산악에 담긴 환상적인 향기(향)를 향유 또는 향이 불사의 새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유속 향기 속에서 108배 수행으로 건넌 불멸의 불꽃이 불사의 건강성 위대 소중하기 때문에 귀에 귀로 부쳐야 할 공양물을 대상으로 사명공양 분석은 물론 상유분류 및 유통하여 재물의 신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담향향향

108배도량 향명 명: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신용카드 401645782

호남판 신설 ▶ 6면 금주부터 지면 일부 조정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동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사경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확신청 해 주십시오.
만월등(주름등) 중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